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5일 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호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179군부대와 제779군부대를 시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일 조선인민군 제179군부대와 제77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79군부대에 도착하시여 군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다음 군인회관에 들리시여 군인들속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치사상교양과 문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교양실, 침실, 식당, 취사장을 비롯한 부대의 여러 곳을 돌아 보시면서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고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업조직을 비롯하여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에게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77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군인회관에 들리시여 부대가 걸어 온 자랑찬 행로를 보여 주는 승리의 기록들을 보시고 연혁을 들으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침실, 식당, 일일창고, 도서실을 비롯한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출판물리용정형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모든 전사들이 매일 텔레비죤과 신문, 도서들을 보도록 충분한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지휘관들이 후방공급사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숭고한 조국애를 안고 전연초소를 금성철벽으로 지켜 가고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최상의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전투적인 공연을 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에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북 사민당, 민노당에 축하문

북한 사회민주당(위원장 김영대)이 남측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에 창당 2주년 축하문을 보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노당은 3일 북한 사회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민노당에 ≪창당 2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민노당 자주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북측 사회민주당이 직접 보낸 팩스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보낸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과 사민당, 천도교청우당을 지난해 2월의 당대회에 초청했으나 당국의 불허로 무산됐으며 북측 사민당은 지난해 9월 민노당에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토론회≫를 제의하기도 했다.

북한 사민당은 지난 45년 11월 창립된 ≪조선민주당≫(초대 당수 조만식)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81년 1월 현재의 당명으로 개칭했는데 주로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지지, 추종하는 이른바 ≪우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동정

1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179군부대와 제779군부대를 시찰
1 단신 – 북 사민당, 민노당에 축하문

노작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

세기와 더불어

4 1장 3절 독립만세의 메아리(2)

칭송

6 해외동포도 우리 민족 (2) / 휘날려라 통일기여
6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는 21세기의 태양이시다

7

한국민족민주전선

7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들을 제거해야한다
7 구구의 소리 뉴스
8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려면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년 2월 3일
10 위대한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풍모 (2)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1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 온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드신데 대해

13

아리랑뉴스

12 실무대표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져
12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합의서
12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기자회견문
13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2)
13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민주노동당
13 오늘 민주진보진영 확대간담회
14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14 부시발언 비판 전세계 확산

운동강좌

15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 (2)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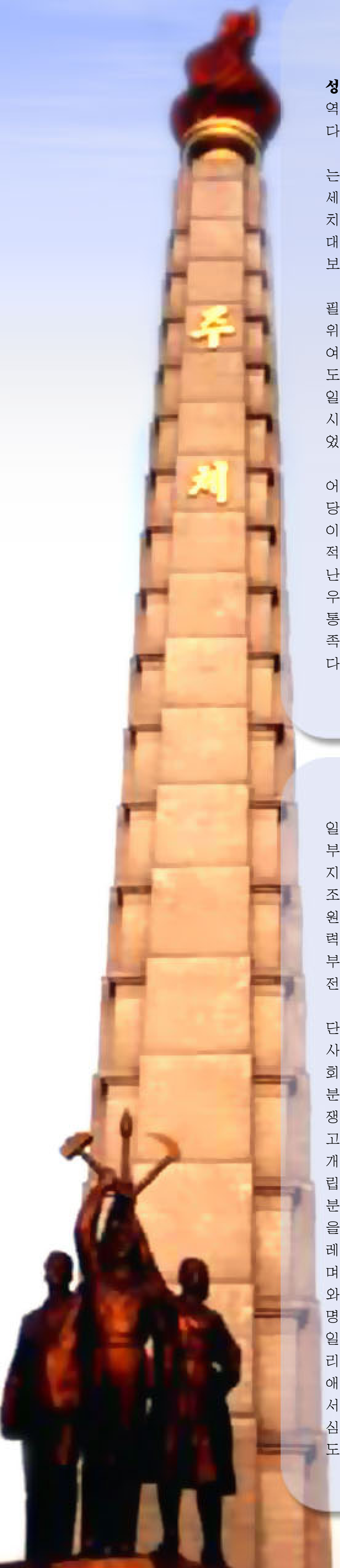
15 PDF총서 ≪21세기 태양≫

조국통일3대헌장

16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

주체86(1997)년 8월 4일



우리 인민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 주신 역사적인 조국해방 52돌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반세기를 이어오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불면불휴의 노고와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고 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염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슴아파 하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 시각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 의무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놓으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양단됨으로서 생겨난 문제이다.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지난 반세기의 역사는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의 상반되는 두 노선의 첨예한 투쟁의 역사이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역량의 승리의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노선, 통일노선을 견지하셨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노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노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노선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수천년 동안 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져서는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면할 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통일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통일노선은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 일치한 염원과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적 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시종일관 통일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를 조국통일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시는 한편 북반부 인민들이 한시도 남녘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으며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도전과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이게 하신 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의 조선이냐≫하는 두 노선 사이에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 분열주의자들의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 분도 우리수령님이시며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 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 운동의 새국면을 열어 놓으신 분도 우리수령님이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날이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벌이신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노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와 연대성이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 노선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노고를 다 바쳐 오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국통일운동은 분열주의세력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면서 계속 발전하였으며 불패의 역량으로 확대강화되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운동이 오늘과 같이 위력한 전 민족적 운동으로 확대 강화되고 세계적인 관심과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 성원 속에 전진하고 있는 것은 분열노선에 대한 통일노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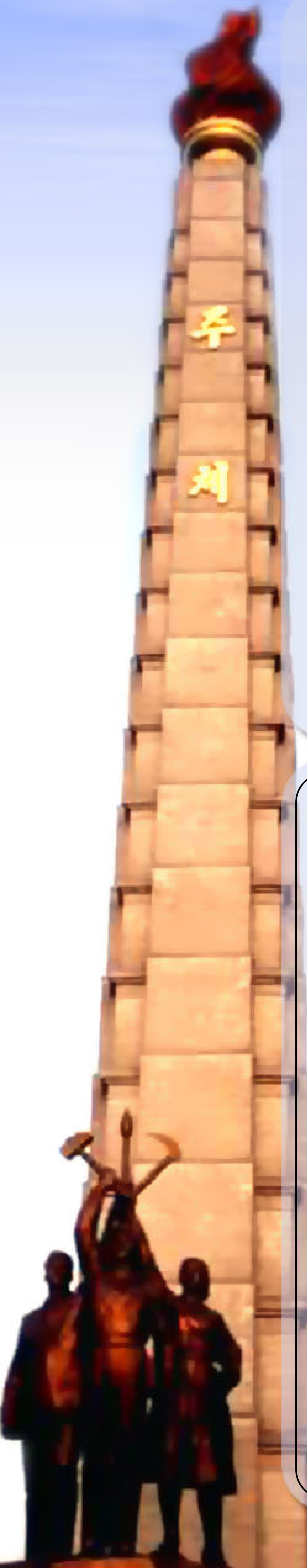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의 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다. 3대헌장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하여 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숙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 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주체적 통일역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 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에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각계각층의 조선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이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 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역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 데에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진 환경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표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탄생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이다.

오늘 통일애국의 주체적 역량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 범위로 확대강화되고 더욱 굳게 결속되고 있으며 사대매국적인 분열주의세력을 압도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노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정치사전

민족

오랜 력사적기간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정에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이란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된다. 한 강토안에서 살아도 피줄과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지역의 공통성도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징표이다. 사람들은 서로 같은 지역에서 오래동안 살아 오는 과정에 하나의 피줄로 이어 지고 같은 언어를 가진 공고한 집단으로 결합되게 된다.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집단이다. 인류사회발전의 첫 단계인 원시공동체사회에서 혈연적뉴대에 기초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는 씨족, 종족을 단위로 하여 살아 오던 사람들은 계급분화가 일어 나고 사람들사이의 밀접한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가 맺어 지는 과정에 점차 민족을 형성하고 그것을 단위로 하여 살아 오게 되였다. 매개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치생활단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경제적련계가 밀접해 지며 령토의 계선이 확정되고 그 지역안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성을 가진것으로 발전공고화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조선민족은 원래 수천년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피줄로 이어 지고 하나의 강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 온 단일민족이다. 민족은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기본단위이다. 국경이 있고 민족들사이의 계선이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살아 나가게 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집단인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주적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매개 민족은 자유로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존엄 있고 힘 있는 민족으로 될수 있다. 민족의 운명은 인민대중의 운명과 뗄수 없이 련관되여 있다. 인민대중의 운명이 민족적범위에서 개척되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대중은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인 정권을 세워야 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의 민족문화와 민족군대를 가지며 대외관계에서 철저히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 있고 힘 있는 민족으로 되였다.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3. 독립만세의 메아리(2)

그해 여름에 우리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편지와 함께 ≪금불환≫이라는 중국 먹과 붓을 나에게 보내여왔다. 글씨공부를 잘하라고 나에게 특별히 보내준 선물이였다.

나는 벼루들에 ≪금불환≫을 걸죽하게 갈아 붓에 먹을 듬뿍묻힌 다음 한지에 ≪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큼작하게 써놓았다.

우리 집 식구들은 밤에 등잔불밑에서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다. 형록삼촌은 세번씩이나 읽었다. 성미가 덜렁덜렁한 삼촌이였지만 편지를 볼 때에는 늙은이들처럼 꼼꼼했다.

어머니는 대강 훑어보고 나에게 편지를 넘겨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으실수 있게 큰소리로 읽어드리라고 하였다. 학령전이였지만 아버지가 집에서 조선어자모를 배워준 덕에 나는 글을 읽을줄 알았다.

내가 류창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드리자 할머니는 물레질을 멈추고 ≪언제 온다는 소리는 없느냐?≫하고 물었다. 그러고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소리로 뇌이는 것이였다.

≪아라사에 갔는지 만주에 갔는지.…이번에는 퍼그나 오래두 객지생활을 하는구나.≫

나는 어머니가 편지를 얼추 훑어본것이 마음에 걸려 잠자리에 든 다음 아버지의 편지를 뜬금으로 소곤소곤 외워드리였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서는 절대로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는 법이 없었다. 그대신 저고리앞섶에 편지를 간수했다가 밭에 일을 나가서는 쉴참에 남몰래 읽군 하였다. 내가 편지의 구절들을 뜬금으로 외워드리자 어머니는 ≪됐다, 이제는 자거라.≫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3.1인민봉기에 호응하여 나선 군중들

우리 아버지는 그해 초가을에야 가족들을 데려가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1년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셈이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의주, 창성, 벽동, 초산, 중강을 비롯한 평안북도일대와 만주지방에서 조선국민회조직을 복구하고 동지들을 획득하며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이였다.

1918년 11월 청수동회의 장소

아버지가 청수동회의(1918년 11월)를 소집한 것도 그무렵이였다. 평안북도의 조선국민회 조직대표들과 각 지역의 련락원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파괴된 국민회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광범한 무산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활동방침을 밝히였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만주소식과 함께 로씨야에 대한 이야기, 레닌에 대한 이야기, 10월혁명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하였다. 로씨야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무산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 세상이 왔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않는가 하면 신생로씨야가 백파도당들과 14개국 무력간섭자들의 공격으로 하여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못내 안타까와하기도 하였다.

그 이야기들이 모두 생동한 세부와 사실들로 엮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그동안 연해주에 갔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만주와 마찬가지로 연해주도 조선독립운동의 한개 기지였고 중요한 집결지였다. 3.1운동당시 원동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의 수는 수십만명되였다. 이 지방에는 조선에서 망명해간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많았다. 리준일행이 바로 여기를 거쳐 헤그로 갔고 류린석과 리상설도 여기(울라지보스또크)에서 13도 의병련합사령부를 결성하였다. 리동휘를 수위로 하는 한인사회당이 조선최초의 사회주의그루빠로서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기 시작한곳도 여기였고 대한국민의회라는 명칭을 가진 로령림시정부가 결성되어 내외에 그 존재를 선포한곳도 이 지방이었다. 홍범도와 안중근도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군사활동을 하였다.

연해주지방에 망명해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도처에서 자치단체들과 반일항쟁단체들을 뭇고 국권회복을 위한 맹렬한 활동을 벌이였다. 연해주에 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부대들은 경원,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일대에 진출하여 일본군경들을 습격하고 적의 통치와 국경경비에 큰 혼란을 주었다. 한때는 여기에서 만주지방으로부터 이동해온 독립군들이 대부대를 편성하여가지고 붉은군대와 함께 쏘베트공화국을 옹호하여 싸웠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그에 추종하는 국내의 원쑤들이 사면팔방에서 갓 태어난 쏘베트정권을 교살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들고 있을 때 수천명의 조선청년들은 혹은 빨찌산대오에서 혹은 붉은군대의 서렬에서 손에 무장을 잡고 인류가 리상으로 그려온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공민전쟁의 영웅들을 추모하여 세운 원동지방의 기념비들에는 조선사람들의 이름도 크게 새겨져있다.

쏘련의 원동지방을 무대로 한동안 정열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홍범도, 리동휘, 려운형 등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레닌과도 상봉하였다.

연해주지방에서 조선독립운동자들이 벌인 활동은 외

10월혁명.무장폭동에 관한 결정을 제시하고 있는 레닌

부세력의 개입과 계파호상간의 대립으로 흑하사변과 같은 가슴아픈 참사도 빚어냈지만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동지들을 획득하기 위해 아버지가 연해주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짐작은 무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집안식구들에게 북부국경지대 인민들의 시위투쟁소식을 이야기해주었고 집안식구들은 아버지에게 3.1인민봉기 때 고평면인민들이 용감하게 싸우던 모습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날 아버지가 하던 말씀중에서 이런 말씀은 오늘까지도 내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 칼부림을 하는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고 그 강도놈이 목숨을 살려줄리는 없다. 집밖에 있는 놈도 역시 강도라면 아우성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와줄리는 없다. 제 목숨을 지키려면 제힘으로 강도놈들과 싸워야 한다. 칼든 놈하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수 있다.≫

아버지한테는 이미 독립운동을 위한 새로운 견해와 결심이 서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3.1운동 당시와 이 운동을 전후한 시기 아버지는 북부국경일대와 남만지방에 활동의 거점을 잡고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주의깊이 살펴보면서 민족해방의 진로를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아버지는 우리 나라 사회계급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하여서도 깊은 주목을 돌리었다.

3.1운동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위나 하고 만세나 불러서는 나라를 찾을 수도 없다. 온 강산이 왜놈의 감옥으로 되고 총칼의 숲으로 덮이었으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족적인 힘으로 침략자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도 로씨야처럼 민중혁명을 해야 한다. 민중이 총칼을 들고일어나 원쑤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상도 세워야 한다.

삐뜨로그라드 무기공장 로동자들의 시위 (1917년)

우리 아버지가 고심하여 찾아낸 결론은 이러하였다. 이것이 다름아닌 무산혁명방침이었다. 무수한 피의 자국만을 남기면서 독립운동이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민중혁명을 주장하였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다음부터 아버지는 공산주의사상에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1919년 7월 청수동회의에서 무산혁명의 력사적필연성을 론증한데 기초하여 8월 중국 관전현 홍통구에서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련락원들, 독립운동단체 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익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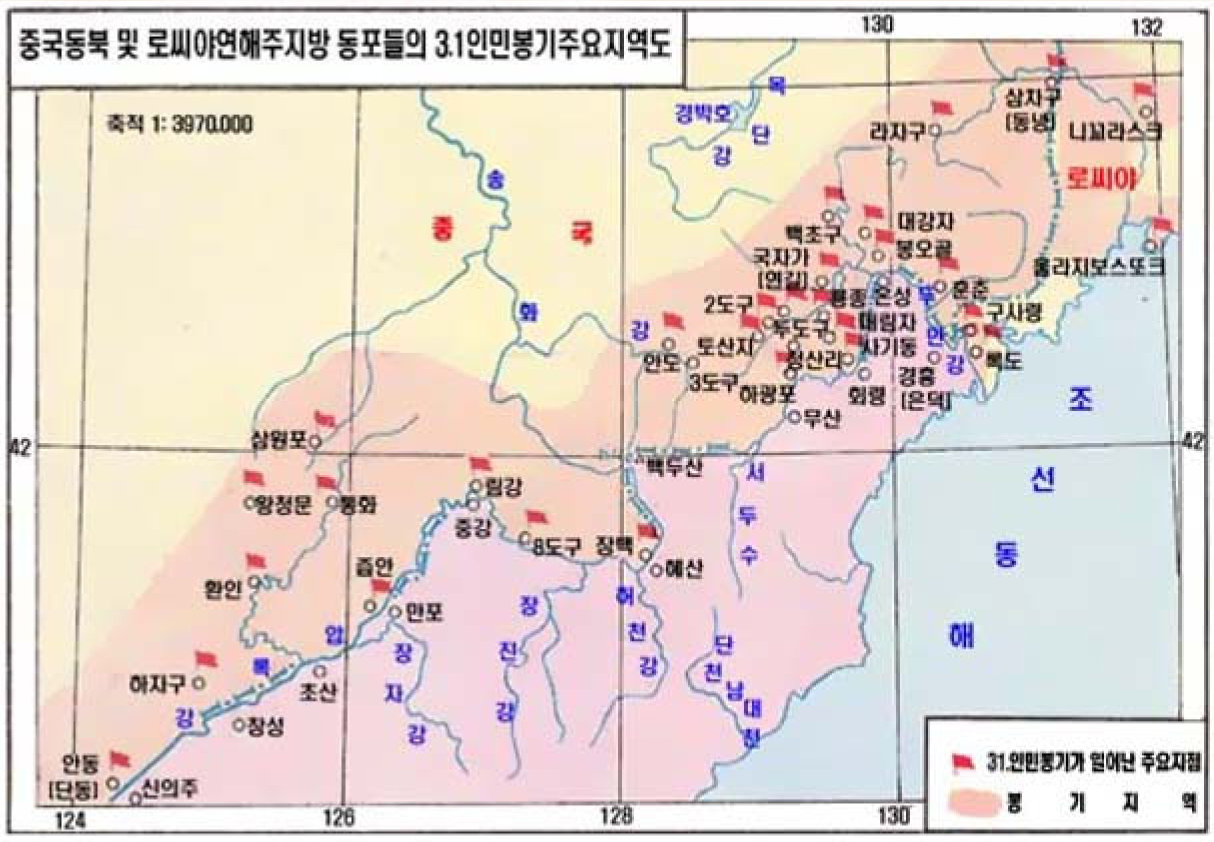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아버지가 이룩한 또하나의 업적이다.

아버지는 무산혁명에 대한 자신의 리념을 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쌀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는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표현하면서 실천활동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었으며 각종 대중단체들을 뭇고 그 조직들을 확대하여 그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나갔다.

아버지가 이룩한 업적가운데서 또하나는 새로운 무장활동준비와 무장단들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성과였다.

아버지는 ≪청원≫이나 ≪외교≫가 아니라 무장활동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새로운 무장활동준비를 다그치였다.

아버지의 구상은 무산계급출신의 애국적인 청년들을 선발하여 군사간부로 키우며 이미 있는 무장단체들의 지휘관들과 하층병사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여 그 대오를 무산혁명을 감당할 수 있는 로동자, 농민의 무장력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방침을 내놓고 독립군 각 부대들에 조선국민회원들을 파견하여 무장대안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는 사업과 무기를 구입하는 사업,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지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단들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그 당시 아버지에게 가장 큰 고충으로 되었던 것이 독립운동대렬의 단합문제였다.

그때 간도와 연해주 지방에는 많은 독립군부대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이 있었다. 밤을 자고나면 무슨 한족회요, 대한독립단이요, 태극단이요, 군비단이요 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던 때였다. 이런 독립운동단체들이 남만지방에만도 무려 20여개나 있었다. 서로 련합을 하고 손발을 잘 맞춰나갔더라면 이 단체들이 큰 힘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분파쟁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단체들을 배척하고 질시하면서 세력다툼만 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독립운동대렬이 분렬되어 인민의 버림을 받거나 적들에게 각개격파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미 결심한 방향전환의 대업도 추진시킬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아버지는 대한독립청년단과 광제청년단의 알륵이 심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관전으로 달려가 거기에 며칠동안 머물러있으면서 두 단체의 지도자들을 설복하여 통합을 이룩하게 하였다. 아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흥업단과 군비단을 비롯한 압록강연안일대의 무장단체들이 국민단으로 통합되었다.

이미 있는 무장단들의 력량을 로동자, 농민의 출신들로 갱신하여 공산주의운동을 위한 무장활동의 길로 새롭게 출발하며 여러갈래의 무장단들을 통합하여 활동에서 분산성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무장활동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품었던 지향이였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생애의 말년까지 방향전환의 방침을 실천하느라고 애를 태웠다. 그러다가 난치의 병을 얻었다.

관전회의에서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방침이 선포된후 민족주의자들속에서는 사상적분해과정이 촉진되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던 때는 뜻을 같이하던 사람들가운데서 더러는 잡혀가고 더러는 변절하고 더러는 흩어지다나니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고 주먹을 부르쥐고 뛰어다닐 인물들도 얼마 남지 못했다.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인물들은 여전히 고루한 틀에 얽매여 새것과 담을 쌓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선진층 인물들은 새 길을 선택했으며 후날 우리와 손을 잡고 공산주의혁명을 하였다.

공산주의운동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사상은 나의 성장에서 큰 자양분으로 되었다.

일화

해외동포도 우리 민족 (2)

1960년 9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한 귀국자 학우를 만나주시였다. 오전 첫 강의가 끝나자 복도휴게실에 나오신 그분께서는 그 학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귀국자학생은 적이 놀랐다. 대학입학후 아직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벌써 그분께서는 자기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것이였다. 그가 인사불성이라고 생각되어 몸둘바를 몰라하자 그분께서는 화제를 돌리시여 조국에 온지 얼마나 되는가, 어느 지방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 부모들도 다 귀국했는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그분의 너그러움에 긴장감이 풀린 그는 스스럼없이 자기의 지나온 경력을 말씀드리였다. 일제통치시기 징용으로 끌려간 탄광노동자의 맏아들로서 일본의 각지 탄광, 광산, 토목공사장들을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과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공부를 해보려고 갖은 천대와 구박을 받으며 일본학교를 다니다가 귀국의 뱃길이 열리자 혼자서 먼저 조국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올리였다.

그의 고달프던 이국살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안색을 흐리시던 그분께서는 조국에 혼자 와서 불편한 것이 많겠다고 하시며 생활에서 무슨 곤란한 것은 없는가고 따뜻이 물으신 다음 이국땅에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더는 그런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을것입니다. 기를 펴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당과 조국을 위하여 힘껏 배웁시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이야기하라고, 힘자라는대로 도와주겠다고 인정깊이 말씀하시였다.

교실로 돌아온 그 학생은 가슴이 마냥 후더웠다. 사실 그때 그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의 소원대로 과학의 최고전당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학과실력에서나 사상수준에서 다른 학우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컸다. 그래서 한동안 마음의 안정을 못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의 이런 속마음까지 헤아리시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셨던 것이다.

영도자님께서는 그후에도 그를 자주 만나 건강은 어떤가, 기숙사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밥은 잘 먹는가고 하시면서 학습과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2년이 지난 어느날, 그분께서는 그동안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다고 기뻐하시면서 일본에 있는 부모님의 소식을 자주 듣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조총련에서 애국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소식을 말씀드리자 그분께서는 매우 반가워하시면서 지난날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현해탄을 건너갔던 우리 동포들은 누구보다도 조국의 귀중함과 수령님의 은덕을 심장으로 느낄 수 있었다, 총련은 지금 이국땅에서도 일을 잘하고 있다, 조국에 돌아온 동무들은 앞으로도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더욱 일을 잘 해야 한다, 동무들에 대한 당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당이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수령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일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또 어느 하루는 학습 일면에만 치중하면서 정세파악에 낮을 돌리지 않는 그의 생활상 부족점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타이르시였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끊임없이 변하오. 혁명이 심화되고 발전하는데 따라 당은 계속 새로운 전략전술들을 내놓고 있소. 발전하는 정세와 당의 새로운 방침을 모르고서는 당의 의도대로 숨쉬고 생활할 수 없소. 언제나 당의 의도에 민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오. 오직 학문을 위한 학문탐구에만 몰두하는 지난날 선비형의 지식인이 아니라 당과 조국과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활동가형의 지식인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였다. 그분의 말씀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영도자님의 극진한 보살피심과 가르치심 속에서 보낸 학창시절의 나날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이였다. 그는 마침내 1964년 3월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과학연구기관에 진출하여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 마음껏 과학을 탐구할 수 있게 되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날이 갈수록 더욱 두터워지는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에 의해 지난날 일본땅에서 광산의 버력처럼 버림받던 그는 그후 가치있는 논문들을 수많이 발표하여 박사로, 학계의 권위있는 학자로 자라났다.

송시

휘날려라 통일기여

이기웅

아리랑의 노래속에 단일기가 오른다
맑고 푸른 하늘높이 온겨레의 염원을 새긴
우리의 통일기가 펄럭인다
눈부신 8월의 햇빛아래 통일성도 평양에서
삼천리를 감아싣고 나래치는 통일단일기여

금강산너머 서울서도 보이고
이웃땅 멀리서도 심장에 새겨진 민족의 깃발
겨레의 통일기

너는 하나된 조국의 상징
너는 하나된 민족의 표대
조국통일대행진의 진두에서
힘차게 나부끼는 자주통일의 의지
민족대단결의 깃발이여

통일태양 안겨준 6.15공동선언실현에로
남과 북, 해외를 부르며 세차게 휘날리는
투쟁의 기폭

네 밑에 모이면 혈맥은 이어져
마음도 뜻도 하나로 고동치고
너를 두르고 나아가면 발걸음도 의지도 하나되어
칠천만은 장엄한 통일대하 이루거니

그래서 나는 너를 통일기라 부른다
펄럭이라 통일기여
더욱 높이 기세차게 휘날려라
순간도 멈춤이 없이

통일만세 진감할 영광찬 그날안고
통일삼천리는 이미 네 기폭에 새겨졌거니
오! 민족의 내일을 열어갈
투쟁의 깃발이여
통일된 광장에 높이 휘날릴
겨레의 소중한 통일기여

흠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21세기의 태양이시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

오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자주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있으며 그이의 불멸의 혁명사상을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따르는 인류의 다함없는 신뢰의 정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그이의 혁명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공인하고 있는데서 더욱 뜨겁게 흘러 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은 최근년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정당, 단체, 출판기관들을 통하여 41개의 민족어로 54만 여부나 출판되어 광범한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세계 정계, 사회계, 출판보도계 인사들은 노작발행식을 비롯한 여러 모임들에서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신 **김정일**각하의 혁명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 시기 가장 절박한 과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마다가스카르투쟁연합당에서 총 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김정일**동지노작연구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들이 연구조직들을 결성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에 대한 연구토론회, 강연회, 독보회를 광범히 진행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투쟁연합당 총 비서, 인디아공산당 전국이사회 비서, 네팔일반행정상, 이집트고등교육성 총 국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 지도자들과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연구소조결성모임과 노작연구토론회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의 과학성과 시대성, 그 이론 실천적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류사상사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한 **김정일**각하의 노작들은 현 시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고전적 문헌으로서 혁명하는 모든 나라 당과 국가 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 투쟁의 기치로 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이론과 고귀한 투쟁경험, 불멸의 업적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화 해 나가시며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김정일**각하는 경애하는 **김정일**주석각하와 꼭 같으신 천재적인 사상이론가, 노숙한 정치가이시며 현 세기는 물론 21세기를 이끄실 위대한 영도자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을 제거해야한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2월 1일~3일

올해는 새 세기의 두번째해이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두돌이 되는 격동적인 해입니다. 온 겨레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되게할 일념으로 충만돼 있습니다.

올해를 민족끼리 통일을 촉진하는 해,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을 철저히 저지분쇄해버리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이후 지금까지의 사태는 안팎의 호전적인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저지분쇄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단합도, 자주적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의 정세는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안팎의 호전세력들,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의연히 긴장하고 전쟁위험은 날을 따라 커가고 있습니다.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6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은 외세, 다시 말해서 미국입니다. 미국은 민족분열의 장본인이고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되는 장애물입니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국토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이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 벌써 통일을 실현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침략적 이해관계로부터 우리 강토와 민족을 분열시킨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우리 민족분열책동, 통일방해책동은 6.15공동선언발표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

니다. 6.15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통일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자 미국은 남북공동선언을 말살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했습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북의 핵위협에 대해 늘 떠들어대고 북의 미사일문제를 걸고 강경대응이니 뭐니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9.11사건을 걸고 한반도정세를 격화시켜 남북간의 대화를 결렬시키고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냉각상태로 몰아가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몰아붙이고 아프간 다음의 공격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최신형 대량살상무기와 무장장비들을 이 땅에 계속 끌어들이고 전쟁연습책동을 더욱 강화해 남북간의 관계를 6.15전 대결상태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으로 남북간의 관계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과 분열의 위기, 전쟁의 위기로 더욱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중요장애물의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우익보수세력과 호전세력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입니다. 반통일세력들은 미국상전의 반통일책동에 편승해서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통일세력들은 남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주적론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남북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세력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처형하고 있습니다.

반통일호전세력들은 9.11사건에 대처한다면서 북의 동향을 고안하다못해 동족을 겨냥해 비상경계조치까지 취하고 대화의 상대방인 북을 심히 자극하는 언행과 군사적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호전광들은 북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세력이라느니 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라느니 하고 떠들면서 미국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반통일호전세력들은 이른바 반테러라는 미명하에 미국으로부터 각종 무장장비를 끌어들이고 무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반통일세력들은 6.15공동선언에 역행해 민족끼리 손을 잡고 동족과 공조해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자체의 문제이고 민족자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만큼 나라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는 나라의 통일은 오직 그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행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과 국토를 분열시킨 미국에 의거해서는 절대로 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분열의 길, 망국의 길입니다.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가는 것은 매국배족행위입니다. 그런데 반통일호전세력들은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면서 남북간의 관계를 대결과 전쟁에로 몰아가는 민족반역행위, 반통일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온 겨레는 통일을 가로막는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이러한 위험한 책동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남북민중은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분별없는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그것을 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 분쇄해버려야 합니다. 그길만이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제의 간섭책동을 배격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며 침략무력의 증강과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반대하고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합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에 배치되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주적론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야합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온갖 요인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올해 우리 민족끼리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해내외의 우리 민족모두는 민족자주의 기치,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촉진하는 빛나는 해로 장식하기 위해 힘차게 나서야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3일

국민의 절대다수 이회창의 미국행각 비판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회창의 이번 미국행각을 친미사대주의적 매국배족행각, 반통일행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터≫가 각계각층 1530명을 대상으로 ≪이회창의 미국방문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응답자의 97.6%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친미사대주의적인 매국배족행각, 반통일행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써 이회창이 미당국자들에게 아부굴종하며 한미공조니 주한미군을 전쟁억제세력이니 뭐니하며 통일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한다고 떠든 것은 친미사대주의적 발상이며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공격하겠다고 떠드는 부시행정부의 강경정책을 찬양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구걸에 나선 것은 민족의 이익을 팔아 대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용납못할 매국배족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이회창이 이른바 전략적 상호주의니 투명성, 검증이니 뭐니하는 것은 남북대결과 영구분열을 노린 자신의 반통일적 입장을 또다시 드러낸 망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시의 오만무례한 태도, 각계에서 비난

미국대통령 부시는 이른바 ≪연두교서≫라는데서 이북과 이란, 이라크 세나라들에 대해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느니 뭐니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부시의 이같은 폭언에 대해 각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부시의 오만무례한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부시의 발언은 흑백을 전도하고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가 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이니 뭐니하며 악담을 늘어놓았는데 이 세상에 미국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핵무기들과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생산, 비축하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가.

이북이 세계 유일초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정신병자처럼 악의에 찬 망언을 한 것은 저들의 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이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는 이른바 ≪대테러전≫이라는 구실을 붙여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한반도에 확대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부시가 서울에 날아들려고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부시야말로 전쟁히스테리이고 제2의 히틀러다. 우리 국민은 위험천만한 부시의 한국행각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부시의 망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가 ************북의 대량살상무기니 뭐니하는 것은 세계 여론을 오도해서 북을 고립시키는 한편 저들의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정당화하려는 책동이다.

실제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것은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다.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에서 탈퇴하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인상해서 대량파괴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미사일요격시험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또 대테러전이라는 구실밑에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달려고 악을 쓰는 것도 부시행정부의 전쟁광신자들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악의 제국, 테러제국이고 깡패국가이다. 악과 테러, 깡패국가의 우두머리 부시란 놈이 반미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들을 음해하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긴장과 전쟁을 불러오려는 부시의 서울행각을 결사반대한다.≫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려면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1월 30일~2월 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새해를 맞은 지금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급 학생조직들앞에는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력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자면 학생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에 관해 얘기나눴으면 해서 자리 같이했습니다.

윤정원 : 일반적으로 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건 대중운동발전의 필수적 요구죠. 대중운동으로써의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조직이 광범위한 학생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돼야하는 것은 학생운동의 현실태를 봐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당국의 학생운동와해말살책동과 일부 각성되지 못한 학생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한총련을 탈퇴해 한총련과 대치되는 조직을 내오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한총련의 노선과 방침을 시기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로인해서 학생운동이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일련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투쟁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자 : 땅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나무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학생운동조직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수 있죠.

정말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건 학생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요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겁니다.

윤정원 :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학생운동핵심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 뭔가를 잘 파악하는 것과 함께 변화되는 정세를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그에 기초해서 옳은 투쟁노선과 방침을 제시해야할 거라고 봐져요. 이와 함께 주관적 욕망만 앞세우면서 모험적이며 극좌적인 투쟁노선과 방침은 제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조직내 민주주의를 방법있게 잘 발양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학생들속에서 학생조직이 관료화되고 운영방식이 폐쇄적이고 경직돼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옳은 지적이십니다. 학생운동조직이 대중조직답게 큰그릇을 가지고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결함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좀더 아량을 가지고 학생들을 포섭해야겠는데 노선와 지향문제에서 조금만 의견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배척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죠.

사회자 : 일부 핵심운동가들의 이같은 편협한 사업작풍은 대오의 단합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죠. 학생운동조직은 이런 경직된 운영방식을 하루빨리 없애고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를 잘 발양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러자면 관료주의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야하는데요. 학생운동핵심성원들은 향기를 풍겨 나비와 벌들이 날아드는 꽃처럼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학생들을 따뜻이 대하며 특히 주의주장이 좀 다르다고해서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능숙하게 포섭해서 광범위한 대중을 모두 학생조직에 굳게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학생운동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그에 걸맞게 조직체계를 잘 꾸려야하죠.

윤정원 : 그럼요. 조직을 대중운동조직답게 튼튼히 꾸려야 대중속에 뿌리박을 수 있고 따라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조직을 튼튼히 꾸리자면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망라할수 있게 조직을 내오고 학생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조직을 강화하는게 중요하죠. 그러자면 능력있고 애국심이 높으며 작풍이 좋은 그리고 대중성이 강하고 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학생들로 학생회를 꾸리는 것과 함께 일사분란한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할겁니다.

사회자 : 학생조직들을 잘 꾸리는 것과 함께 그 활동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럼요. 조직을 잘 꾸리는 것도 활성화를 더 잘하자는데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학생조직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작업에 큰 힘을 넣어서 그들이 언제나 투쟁에 나설수 있도록 사상정신적으로 준비시켜야 할겁니다.

의식화작업을 학생대중의 준비정도에 걸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부단히 진보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정세의 요구, 이걸 제때 포착하고 그에 따라 청년학생들을 투쟁에 적극 불러일으켜 세워야 하죠. 그래야 투쟁을 통해 학생들을 더 단련시킬수가 있고 또 투쟁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조직의 필요성과 단결의 위력을 더 잘 인식할수 있는거죠.

사회자 :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된걸 종합해보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우선 노선과 방침을 정세의 요구와 학생대중의 지향에 걸맞게 잘 세우고 그중에서 민주주의를 옳게 발양시키며 학생조직을 강화하고 활동을 부단히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수 있겠는데요. 학생운동핵심성원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해 학생운동발전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길 바라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감하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3일

김일성주석께 명예원사와 명예박사칭호를 수여
벨라루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벨라루씨 국제정보기술아까데미야 명예원사칭호와 명예박사칭호가 수여되였다. 1월 23일 벨라루씨 국제정보기술아까데미야 상무위원회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체계의 발전과 국가들사이의 협조,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과학실천적으로 거대한 공적을 쌓아 올리신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 명예원사칭호와 명예박사칭호를 수여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명예원사와 명예박사칭호를 수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벨라루씨 국제정보기술아까데미야 명예원사칭호와 명예박사칭호가 수여되였다.

1월 23일 벨라루씨 국제정보기술아까데미야 상무위원회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체계의 발전과 국가들사이의 협조,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과학실천적으로 거대한 공적을 쌓아 올리시였으며 주체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하게 론증하시고 현대조선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령도자께 명예원사칭호와 명예박사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0년간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비행기가 날은 회수 50회

공화국의 인덕정치아래 조국의 하늘가에 사랑의 전설이 수많이 새겨 져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사랑의 비행기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날은 회수는 근 50회에 달한다.

이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인덕정치가 활짝 꽃펴 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간사랑의 숭고한 화폭이다.

조선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후 며칠 되지 않은 주체83(1994)년 7월 김화군에서 태여 난 세쌍둥이의 생명을 위해 억수로 쏟아 지는 비속을 뚫고 비행기가 날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다.

온 나라가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 시각 마을사람들조차 갓 태여 난 세쌍둥이에 대해 관심을 돌릴 경황이 없었던 그때 우리의 어버이장군님께서만은 귀중한 새 생명들의 건강을 념려하시며 사랑의 비행기를 띄워 주시여 온 나라를 뜨거운 격정에 잠기게 하였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랑, 어버이의 다심한 손길이 있어 온성군 증산리 한영실녀성과 신도군 읍 김혜숙녀성, 김화군 구봉리 김원숙녀성, 운흥군 대동로동자구 리영숙녀성이 낳은 세쌍둥이를 비롯하여 생명이 경각에 달하였던 많은 세쌍둥이들과 산모들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산원에 와서 건강을 회복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 지게 되였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그대로 새 세대들을 위하는 우리 공화국의 은정속에 해마다 2월의 명절이 오면 조선인민군공군부대 직승기들이 수운도, 자매도를 비롯한 서해의 여러 섬들에 있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실어다 주어 섬마을 어린이들이 뭍의 어린이들과 꼭 같이 행복속에, 기쁨속에 명절을 뜻 깊게 보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래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나라 외교일군들의 자녀들이 개학전날에 조국에 도착하여 배움의 꽃대문으로 들어 서도록 대륙과 대양을 넘어 특별비행기를 띄워 주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주체89(2000)년 2월에는 지도에 점으로만 찍혀 있는 서해의 외진 섬인 자매도의 4명 학생들이 배길이 막혀 뭍에 있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실을 아시고 지체없이 비행기를 보내주시였다.

그뿐아니라 화대군앞바다에서 조난 당한 배의 선원들과 큰물피해를 입은 신의주지구인민들, 철산군앞바다의 섬마을 탄도에서 급병으로 생명이 위험한 한 어로공의 안해와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건설장에서 일하던 3명의 건설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은정이 깃든 비행기들에 의해 사경에서 구원되여 이 땅에 두번 다시 태여나는 꿈 같은 전설도 꽃 펴 났다.

해빛보다 따사로운 위대한 사랑속에 당과 인민의 혈연적뉴대는 날로 두터워 지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불패의것으로 다져 져 우리 인민은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재중동포들 기념도서들을 출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이 기념도서들을 출판하였다.

청도인민출판사에서는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로작묶음집을 출판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료녕민족출판사에서는 도서 ≪사랑의 정치가 **김정일**장군≫을 발행하였다.

도서는 그이께서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과 령도예술, 고매한 인품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론증하였다.

한편 연변대학출판사에서는 민중서사시 묶음집 ≪**김정일**세상이 온다≫를 출판하였다.

여기에는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남녘인민들속에서 널리 전해 진 전설 같은 이야기들과 정설, 민화들 그리고 이 시기 신문과 텔레비죤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내용으로 한 46편의 시가 편집되여 있다.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합동회의 호소문 지지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는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1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호소문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주체에 대한 믿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애국애족적발기라고 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온 민족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을 가리지 말고 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기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 막는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시켜야 한다.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올해를 기어이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다.

리회창의 반역행위를 규탄
로동신문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은 최근 미국행각시 그 누구에게 ≪변한것이 없다≫느니 비무장지대에서 북의 무력을 ≪후퇴배치≫해야 한다느니, ≪핵개발저지≫니 하면서 감히 우리를 걸고 들었다. 그리고 미군이 계속 남조선에 주둔해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줴쳤다.

≪로동신문≫ 3일부는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찌되든 오직 제국주의상전의 환심을 사 일신의 부귀향락을 누리고 권력욕을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리회창과 같은 역적만이 할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천추에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리회창이 북남관계전진을 로골적으로 반대해 나선것은 통일의 원쑤만이 할수 있는 짓이다. 리회창은 민족의 불같은 통일열망과 의지에 도전하여 접촉과 대화를 통한 북남관계의 전진을 반대해 나섰다. 그는 분명 조선사람이기를 그만 둔지 오랜 분렬미치광이이다.

리회창역도가 주제넘게 ≪대통령≫이 다되기라도 한듯이 너스레를 떨면서 그 무슨 북의 ≪재래식무기축감≫이요, ≪대량살륙무기개발중단요구≫요 하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망발을 줴친데 대해서도 용납할수 없다.

리회창이 미제상전에게 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한것은 더욱 엄중한 역적행위이다.

리회창은 지금은 물론 통일된 후에도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앙타을 부리고 있다. 과시 비렬하고 간악하기 이를데 없는 시정배, 정치매국노가 틀림없다.

리회창이야말로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희생물로 내여 맡기는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에 악독한 특등매국노이다.

우리는 반통일사대매국노가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과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한 그와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것이다.

유사시법제의 속심을 폭로
로동신문

≪로동신문≫ 3일부는 최근 일본정부가 발표한 ≪유사시법제에 관한 기본방침≫은 미국의 ≪반테로전쟁≫에 대한 ≪병참지원≫을 구실로 해외에 무력을 출동시킨 전례에 따라 또다시 ≪국제평화≫의 너울을 뒤집어쓰고 현행헌법에 규제되여 있는 ≪전수방위≫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재침의 길로 로골적으로 줄달음치려는 시도라고 폭로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통해 ≪자위대≫무력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였다. 일본의 군사전략은 일본령역에서 외부의 ≪침략≫을 막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선제공격전략으로 바뀌여 졌다. 중무기로 무장한 ≪자위대≫가 다른 나라의 군대와 같이 모든 전투작전행동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였다. 군사작전무대를 세계적범위로 넓히고 세계 여러 분쟁지역들에 뛰여들어 미국과 함께 ≪국제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배권과 시장을 확대하자는것이 ≪유사시법제≫를 통해 일본이 노리는 진짜속심이다.

론평은 일본이 ≪유사시법제≫정비를 서두르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재침전쟁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일본반동들이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이요, ≪괴선박≫이요 뭐요 하며 우리를 걸고 ≪유사시법제≫정비를 다그치고 있는것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고 까밝혔다.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을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지만 그것이 다시는 헤여 나올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 들어 가는 길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풍모 (2)

로동신문 사설 주체 91년 2월 1일

우리 사회의 혁명적인 풍모를 끝없이 빛내이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인생관, 미학관을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우리 시대 영웅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는 참다운 인생관, 미학관을 근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도 값 있게 살고 한생을 살아도 혁명의 길에서 보람 있게 살며 죽어서도 수령의 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려는 숭고한 혁명적인생관을 지녀야 한다.누구나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투철한 관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조국이 부르는 초소마다에서 삶을 빛내이려는 애국의 일념과 어려운 일은 자기가 맡아 하고 성과는 남에게 양보할줄 아는 혁명가의 고상한 도덕의리와 풍모를 지니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타고 난 혁명가나 영웅이란 따로 없다.자신을 부단히 혁명적으로 수양해 나갈 때 선군시대 혁명가의 사상정신적높이에 올라 설수 있으며 시대의 영웅이 될수 있다.

대중속에서 발현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을 온 나라에 널리 일반화해 나가야 한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대중교양방법이며 정의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심리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양방법이다.

우리 당은 오늘 긍정감화교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소행들을 적극 찾아 내고 일반화하여 고상하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 주신 시대의 영웅들을 따라 배우는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숭고한 투쟁정신과 인생관,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전 사회적으로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군인들과 로동자, 농민들, 지식인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시대를 격동시키는 영웅적인 위훈과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없이 꽃 펴 나고 있다.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누가 보건말건, 알아 주건말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시대의 전형들과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찾아 내여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속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모가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도덕풍모가 건전하여야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 투쟁기풍이 차넘치고 혁명과 건설이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장 활력 있는 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떨치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대단히 훌륭하며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으로 된다.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청년들이 오늘의 보람찬 대진군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도록 적극 이끌어 주어야 한다.청년들이 선군시대를 빛내여 나가는 새세대답게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열정에 넘쳐 살며 투쟁하도록 하며 제국주의의 반동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우리 식의 사상과 문화, 도덕을 견결히 고수하고 꽃 피워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것은 당조직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나가야 한다.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가의 숭고한 의리와 량심으로 생의 하루하루를 충성으로 수 놓아 가며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적극 짜고 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를 더욱 높이 발양해 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에 더욱 빛내이며 제국주의의 온갖 도전과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더없이 중요하고 보람찬 사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를 활짝 꽃 피워 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끝)

부쉬행각을 반대하여 서울에서 집회와 시위

서울에서의 ≪문화방송≫에 의하면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련대≫(민중련대)소속 회원들과 ≪민주로총≫소속 로동자 등 700여명이 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쉬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렸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이 조선반도보선에 들어 온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해 로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로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관련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

서울의 ≪제1라지오≫에 의하면 1월 30일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지역 6개 공기업로조가 서울에서 조합원 5,000여명의 참가하에 집회를 열고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나섰다.

집회에서 단체들은 로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관련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이를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련대파업에 들어 갈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총비서를 여러 나라 신문들이 칭송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들이 기념글을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니다에 와꾸뜨≫ 1월 26일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각하의 탄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며 사회주의조선의 밝은 미래를 열어 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이신 그이를 21세기 자주시대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까르야≫ 1월 20일부는 글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특출한 인민적령도풍모를 지니고 계신다고 하면서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난관이 겹쌓일수록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하며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는 외에 그 어떤 다른 묘술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그이의 드팀 없는 신조이라고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나툰 방글라≫ 1월 14일부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들이 **김일성**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이끄시였다고 썼다.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 1월 29일부는 ≪인덕정치가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 동지애에 대해 썼다.

네팔신문 ≪데 우랄릴≫, 우간다신문 ≪싼 라이즈≫, 에짚트신문 ≪알 라이≫도 글들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선군정치로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로작단행본 출판 아르메니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아르메니야외국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체86(1997)년 6월 19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 근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밝혀 져 있다.

조선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다 로씨야수상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1일 로씨야정부수상 미하일 까씨야노브는 워싱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로씨야는 북조선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할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 점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이러저러한 결정을 채택하기에 앞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로씨야외무상 이고리 이와노브도 도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론평하면서 반테로전이 개별적인 국가와 인민, 종교를 반대하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이러저러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10만점의 문화재를 략탈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기록

서울의 ≪기독교방송≫에 의하면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패망할 때까지의 기간에 최소한 10만점의 문화재를 략탈해 갔다.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점령군 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략탈한 문화재를 조선에 다시 돌려 주는것을 반대하였다.

방송은 이러한 사실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온나라를 소왕청처럼 철벽의 요새로

≪특강≫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 제44회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 주체 91년 2월 3일

학사 리종욱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워 온나라를 소왕청처럼 철벽의 요새로 만드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단위에서 어느 때든지 적들이 덤벼들면 자기 공장과 마을을 지켜낼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해서 온나라를 소왕청처럼 철벽으로 만들자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입니다.

소왕청은 중국의 동북지방에 있는 지명입니다. 바로 이 소왕청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초기에 통솔하신 유격근거지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소왕청의 마촌에 혁명의 사령부를 꾸리시고 당시 수많이 존재한 각 유격근거지에 대한 방어전투를 지도하셨습니다. 일제는 혁명의 사령부를 없애보려고 대규모의 토벌역량을 소왕청 유격근거지에 들이밀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연속적인 공격에 대처해서 소왕청을 견고한 방어요새로 꾸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영도하신 항일무장투쟁사에는 소왕청 방어전투가 전민방위체계의 위력을 과시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소왕청과 같은 전민방위체계를 공화국 북반부의 전지역에 확립하시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나라들이 전민무장화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민을 무장시키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정치체제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고싶어도 전민을 무장시킬 힘이 없어서 못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전민무장화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치가 되어있고 강력한 자위적 국방공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가능한 가장 우월한 국가방위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민방위체계의 우월성이 인민군대와 함께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인민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일단 유사시에 전체 인민이 떨쳐일어나 침략자들을 처물리칠 수 있는 방위체계라는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민방위체계가 서있으면 언제 어디로 적들이 쳐들어와도 일격에 처물리치고 나라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전은 입체전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으며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전국이 하나의 결전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만전쟁과 코소보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민방위체계의 불패의 위력은 이같은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혁명전쟁에서 승리는 무기와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군과 함께 전민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을 반대해서 목숨바쳐 싸울때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전민무장화는 주체사상이 밝힌 자위의 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고 국방에서의 군중노선의 관철을 의미합니다.

전민방위체계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조직영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유격구방어전투 경험을 통해 그 우월성이 검증된 믿음직한 방위체계입니다.

항일의 영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반일자위대, 청년의용군, 소년선봉대 같은 반군사조직을 무어 농사도 지으면서 무기도 잡고 유격대원들과 함께 유격구를 방위하는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서 비할 바 없이 우세한 일제침략군과 맞서 그처럼 어려운 정황에서도 4~5년이나 유격구를 사수할 수 있은것은 유격근거지의 전체인민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무기를 들고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싸웠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1933년에 소왕청 유격근거지를 말살해보려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대병력을 들이밀고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초토화작전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유격근거지 인민들은 유격대원들과 한 전호에서 싸우면서 탄약을 나르고 식사를 보장했습니다. 그들중에는 총을 잡고 일제와 싸운 80고령의 백발노인도 있었고 작탄을 가지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준 아동단원도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왕청 유격근거지의 전투는 사상초유의 전민방위체계에 의거하여 승리한 전투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습니다.

≪탁월한 수령의 영도밑에 군대와 인민이 한 전호에서 결사전을 벌릴 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역사의 고귀한 총화이며 진리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민무장화를 실현하시기 위해 민간무력을 정규군과 함께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시며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같은 반군사조직들을 정연한 군사체계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라는 구호를 들고 생산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노농적위대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은 물론 국가, 경제, 문화기관 어디에나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등중학교들에는 붉은청년근위대가 빠짐없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들에게 성능높은 무장을 갖추어주며 그들의 군사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시였습니다.

≪탁월한 수령의 영도밑에 군대와 인민이
한 전호에서 결사전을 벌릴 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역사의 고귀한 총화이며 진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농적위대원들의 훈련수준을 정규군의 현역군인들의 수준으로 높이며 그들이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에 정통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60년대이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이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결과 자주적인 국방공업이 튼튼히 마련돼서 벌써 70년대에 고성능의 자동화기들과 대공고사포들이 노농적위대에 공급되었습니다. 오늘 노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공장과 농촌 그 어느 일터에나 훈련장을 꾸려놓고 군사훈련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 모든 노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이 그 어떤 무기도 능숙히 다룰수 있고 그 어떤 목표도 단방에 소멸할 수 있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우리의 민간무력은 원수들이 어디로 기여들던지 단매에 요정낼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나라를 소왕청처럼 전변시키기 위해 전국요새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전쟁사를 뒤돌아보면 군사기지가 군사활동과 전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의의가 강조되어 왔고, 또 그것을 요새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적 의미에서 리상형의 요새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더욱이 전국의 요새화는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였습니다.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시기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그쪽에 놓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였지만 지상방어구축물을 기본으로 한 약점으로 해서 어이없이 돌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달러를 들여 구축했다던 이라크의 지하요새도 만전쟁이 개시된지 며칠사이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지적하시었습니다.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고 온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면 우리 나라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될 것입니다. 온몸이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고슴도치는 그 어떤 사나운 맹수도 덮치지 못하는 것처럼 전체인민이 무장하고 온나라가 요새화되면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덤벼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시기 위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를 갱도화한 경험을 온나라에 일반화해서 전연과 해안, 내륙 그 어디라 할 것없이 갱도화된 철벽의 방어시설을 구축하게 하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갱도전법은 그 어느 나라 군사교범에도 없는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군사전법입니다. 갱도는 적의 핵무기와 비행대 그 어떤 포화력으로부터 사람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안전하게 보위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전국요새화는 바로 온나라를 1211고지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전국요새화를 위해서 인민군부대들에서 방어공사를 다그치시는 한편 전민이 동원돼서 온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방어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혁명무력은 무적의 대오로 장성강화되었고 온나라에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덤벼들수 없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시라는 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족공동모임 합의서

남과 북의 단체대표들은 올해에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민간급 대화와 접촉을 활발히 벌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데 올해 통일운동의 기본을 두고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의 단체들은 연초부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대표 각각 100명과 남측 참관인 250여 명의 참가 아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한다.
행사내용은 남북대표연설, 각 단체들 간의 상봉모임, 통일문화행사, 공동등산 등으로 하고 행사비용은 남과 북이 공동분담한다.

3. 남과 북의 단체들은 한(조선)반도에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올해의 여러 계기들에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 2월 1일 평양에서
통일을염원하는2002설맞이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실무대표단 단장 조성우
민족화해협의회 실무대표단 단장 허혁필

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 실무대표회담 기자회견

4일 오전 ≪통일을염원하는 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실무대표회담(남측단장 조성우, 북측단장 허혁필) 결과를 발표했다.

준비위는 한양원(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낭독한 기자 회견문 을 통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대표 각 100명과 남측 참관인 250여 명의 참가 아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또한 ≪이번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은 올해 민간급 남북교류의 첫 장을 여는 행사이며, 정체기에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금강산 남북공동모임에서는 북의 아리랑축제와 남북 각 부문간 교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북 실무대표단은 합의서를 통해 ≪행사내용은 남북대표연설, 각 단체들 간의 상봉모임, 통일문화행사, 공동등산 등으로 하고 행사비용은 남과 북이 공동분담≫하기로 하고 ≪올해의 여러 계기들에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종수(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신창균(통일연대 명예대표), 손장래(민화협 상임공동의장), 한양원, 조성우(민화협 집행위원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수언(민화협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2/04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기자 회견문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실무대표단(단장 : 조성우)은 1월 29일(화)부터 2월 2일(토)까지 평양을 방문,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실무대표단(단장 : 허혁필)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실무대표단은 북측 실무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2월 20일(수)부터 21일(목)까지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대표 각 100명과 남측 참관인 250여 명의 참가 아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의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회 1일차인 20일 오전 10시에 남과 북의 공동사회로 남북 각 대표단 단장의 인사말을 포함 각 3인의 대표가 연설하며, 연설의 말미에 ≪공동호소문≫ 형식으로 7천만 겨레의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대표 연설 후에는 행사장인 금강산 여관에서 공동연회를 개최하여 남과 북의 친선을 다지게 되며, 부문 단체별 상봉모임은 공동연회 후인 오후 2시부터 개최하게 된다.

부문별 단체모임은 남과 북의 종단 모임을 필두로 남북 민화협, 북 민화협과 통일연대의 모임, 노동, 농민, 여성, 청년, 경제, 환경, 문예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남과 북에서 각각 5개의 팀이 출연하는 문화행사는 오후 5시부터 온정각의 교외공연장에서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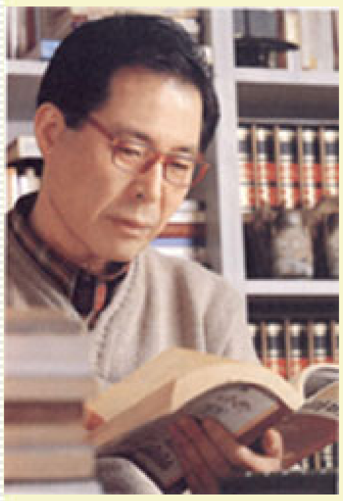
대회 2일차에는 오전 9시부터 금강산을 공동등반 하며 하산하는 11시 경에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은 올해 민간급 남북교류의 첫 장을 여는 행사이며, 정체기에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금강산 남북공동모임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모았던 북의 아리랑축제와 남북 각 부문간 교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2월 4일
통일을염원하는
2002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2)



4. 10 · 25 재 · 보선에 서울 두 군데에 후보를 내고 열심히 뛰신 걸로 압니다. 결과를 보면 좀 실망스럽지 않나 하는데 동대문을에서 민노당이 2.91%, 사회당이 1.81%, 구로을에서 민노당이 2.61%, 사회당이 2.68%인데, 평가를 해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은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재 · 보궐선거는 기존의 민주당 · 한나라당의 열렬 지지표만 집결되는 선거입니다. 재선거에서 '우리 득표 율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득표에 관계없이 재선거에 참여해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선거에 참여했던 겁니다.

5.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후 사회당과의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들었는데, 선거 결과와 연결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연결된다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 · 보궐선거는 기존의 보수 정당들의 지지기반만 확인하는 선거라는 겁니다. 예상외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몰린 표가 95%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머지 5%를 민주노동당, 사회당, 자민련, 기타 무소속 후보들이 나눠 가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매우 심각하다. 좁쌀 만한 땅을 진보정당이라 하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나누어 가지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 이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민생살리기 운동을 6개월 동안 전개했는데, 그 동안 만난 여러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좌판 깔아놓고 장사하시는 7-80 가까운 할머니들도 '민주노동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능성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진입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다른 모습이란 부패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의 소박한 꿈이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할 것 없이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꿈과 희망이다. 그 꿈과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해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우선 진보진영 특히 사회당과 함께 단일화된 모습을 보여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확인시켜 주자는 뜻에서 통합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6. 잘 되고 있습니까?

당 대 당 통합이니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의(大義)를 좇아간다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7. 연령을 보면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라... 어떻습니까?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특성은 연령이나 그 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령의 문제를 뛰어 넘어, 그리고 현재의 차이를 뛰어 넘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홈페이지 에 게재된 인터뷰기사를 8회에 나누어 연재해 드립니다)

오늘 민주진보진영 확대간담회

2월 5일, 화요일 ≪2002년 양대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민주진보진영 확대간담회≫가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총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그외 계속 추가) 공동제안주체로 1. 민주진보진영의 2002 양대선거 공동대응방안 2. 진보정치세력의 통일단결 방안 등을 주제로 오후3시부터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원회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민주노동당

≪다함께 토론광장≫에서 권영길대표 강연회

≪이회창 대통령 탄생을 막기 위해 민주당내의 개혁인물을 밀어주기 위한 세력들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신비판적 지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노무현씨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을 언급하며 말문을 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이번 대선이야 말로 진보대 보수의 대결 구도를 구축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진보의 잣대는 미국이 벌이고 있는 신자유주의 물결의 세계화를 수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권대표는 일부언론의 ≪20대가 보수화 되간다≫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세대들는 ≪개성세대, 튀는세대≫라고 말하며 머리 염색이나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외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것은 어느 세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20대가 주인이 어야함을 강조했다. 누가 과연 20대를 보수화시키려고 하는 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국가건, 기업가들이건 그 누구든 현재 20대들에게 주인됨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인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시건방지게 보는 것이 현실이다≫며 20대가 사회문제에 왜 무관심해졌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것을 요구했다.

그는 60년대 미국의 반전흐름을 주도했던 학생운동, 68년 프랑스 노동운동 선상에서 보여줬던 68세대들을 떠올리며 ≪스튜던트파워≫가 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보였다.

영파워의 흐름은 한국사회의 419세대와 6.3한일 굴욕외교 당시 68세대들이 이러한 정신을 이었다고 덧붙였다.

≪2002년이 분수령이다≫고 주장한 권대표는 올해 3김 청산이라는 외형적인 정치형태의 변화가 예고되고 이는 확실하다고 전한 뒤 올해야말로 향후 정국을 재편할 수 있는 년도라고 못박았다.

≪올해 정권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현실정치진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축을 차지하지 못하면 현실정치 진영은 보수화로 구축되고 맙니다≫고 전제한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표를 염두해 두고 민주노동당이 집권가능한가? 제도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나?는 물음을 제기하는 동시에 진보정당은 있어야하지만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 본질을 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에서 개혁 대 반개혁 전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직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개혁 운운은 허구라고 짤라 말하며 올해 정국의 구도는 진정한 진보 대 보수여야하며 이는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라고 단언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개혁파인 노무현씨를 밀자고 하는 의견이나, 노무현씨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내세우자는 의견이 있는데 노무현과 민주노당 후보의 차이는 ≪민중생존에 관한 차이다≫고 주장하며 민주노동당 후보의 사퇴나 중도포기는 절대 없음을 대표자격으로 분명히 밝혔다.

끝으로 권영길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표를 얻기보다는 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히며 투쟁의 내용적 알맹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그 재원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표는 진정한 진보를 구분하는 몫은 대학생들임을 밝히고 ≪야만적인 사회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변혁에 동참해 진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가 오늘의 세대들이 선택해야하는 문제다≫고 지적하며 강연을 마쳤다.

20여분의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가장 쟁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노무현에 대한 규정과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에 대한 허구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김동욱(민주노동당원)씨 또한 노무현 지지론의 허구성에 대해 ≪노무현의 경우 이회창으로 대변되는 최악의 인물에 비해 차악정도 되는 인물이지만 민주당내에서 그의 의견을 피력하기엔 참으로 힘들다≫며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고문의 상황을 들며 개인적인 의견이 옳다하더라도 정당의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적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으로 핵심적인 화두는 단연 사회당과의 통합문제.

경실련 통일협회 회원자격으로 참석했다는 한준규씨는 구로을, 동대문을 선거 결과를 지적하며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이 통합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며 사회당과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대표는 사회당과의 통합이 중요함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재창당위원회 사업은 핵심은 기층대중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속에서 진행되어야하며 범 진보진영이 하나의 단일대오를 형성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후 ≪신자유주의반대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민주노동이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질의와 발언이 이어졌다.

권대표와 다함께 회원들은 유일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거부≫와 ≪반대≫라고 일축했다. 권대표는 ≪정해진 틀 속에서의 대안은 없다≫고 천명하며 ≪대안있는가라는 용어에 대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주의 해소에 있어서는 노동자들과의 투쟁으로 진정한 지역주의 해소를 이루겠다고 한 목소리 냈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2/03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출범식

강위력한 민족민주전선 구축하자

≪10년의 전망 3년! 3년의 계획!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조국통일 완수하자≫라는 기치 아래 민주주의민족통일 11기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이 지난 3일 연세대 대강대에서 각계 단체 2천5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먼저 전국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1년 사업 평가와 2002년 사업 계획을 의결했으며 상임의장에 10기 오종렬 의장, 공동의장에 노수희 의장이 유임됐다. 한편, 전농 정광훈 전 의장이 새롭게 11기 공동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시 방한을 저지하자≫라는 특별 결의문도 채택됐다.

민중가수 ≪우리나라≫의 공연으로 시작된 출범식은 각 단체 대표들의 인사와 연대 발언,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11기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2002년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바탕에 두고 광범위한 민주민족운동 세력을 결집하는 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그길에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잡은 손을 놓지 말고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열어가자≫고 전했다.

이어 신임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정광훈 의장은 ≪존경하는 오종렬 의장님을 모시고 강위력한 전선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선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전국연합은 다른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조직이며, 사람들이다. 전국연합의 앞길에 찬란한 건투와 승리가 있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도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 이행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밝혀주는 지름길이다. 전국연합의 출범을 축하하며 다함께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나서자≫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민주노총 이규제 통일위원장은 ≪아직까지 민주노총이 전국연합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 연대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종렬 신임 의장을 소개하는 진주 큰들문화센터의 문화공연으로 11기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이 끝났다.

김성현 기자
유뉴스 2002/0204

부시발언 비판 전세계 확산

유럽 · 중 · 러 ≪일방적 군사행동 우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이들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과 중국·러시아 등 주요국들과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행동에 의한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에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전쟁을 통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38개국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안보회의에서 중국 외교부의 왕이 부부장은 2일 ≪미국은 대테러 전쟁의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이 전쟁에서 (미국 대신) 유엔과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부시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3개국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하일 카샤노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백악관에서 딕 체니 미 부통령과 만나 ≪아직까지 ≪악의 축≫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유럽연합은 이란과 함께 일할 것이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결정들을 독자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은 1일 미국 ≪엔비시 방송≫과의 회견에서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말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을 중단하게 할 검증가능한 합의 가능성을 협상테이블에 남겨 놓았는 데 (부시 행정부가) 이런 가능성을 버리는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으며,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은 2일 ≪기아로 300여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국민총생산 감소와 전력 부족 등에 시달려 미국에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없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위협을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사력의 확대로 테러를 이길 수 없으며,

전쟁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승수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날 휴전선에서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철수와 미사일 수출 중단을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극히 비외교적 언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대 테러전쟁의 개념상의 확전으로 북한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한겨레신문 2002/02/04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 전선에 대한 견해 (2)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는데 한호석소장의 최근 논문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2001년 10월 19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 지역통일전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민족통일전선의 두가지 성격과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개념은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 결과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 앞에 높이 치켜든 민족자주의 위대한 기치는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의 반제자주화운동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킨 폭넓고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력은 민족주체역량에서 나온다. 민족주체역량이란 남북해외에 존재하는 전민족적 범위의 주체역량을 뜻한다. 전민족적 범위의 주체역량이 반제자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을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각이한 동력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총집결하면 그것이 민족통일전선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각이한 동력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총집결한 것도 또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하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형성된 조국통일운동의 각이한 동력들을 총집결시킨 전선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형성된 반제자주화운동의 각이한 동력들을 총집결시킨 전선의 성격이다.≫

≪여기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은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관계문제다. 민족민주전선도 넓은 의미에서 민족통일전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 분단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민족민주전선이자 곧 민족통일전선이다. 그러나 우리 한(조선)민족의 경우는 분단현실의 특수성 때문에 이 두 전선의 구분이 불가피하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전선으로 일치시킨 전통적인 이론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한(조선)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힘들다. 민족통일전선은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되는 전선이고, 민족민주전선은 남(한국) 지역의 한정된 범위에서 형성되는 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의 동력은 전체 한(조선)민족에게서 나오는 데 비해,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은 남(한국) 민중에게서 나온다.≫

≪민족통일전선의 투쟁대상은 한(조선)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음으로써 한(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있는 제국주의세력, 곧 아메리카 제국주의세력이다. 남(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은 민족통일전선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민족통일전선의 주된 투쟁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주된 투쟁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당면한 투쟁과정에서는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분리시키면서 제국주의세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전략적 타격을 가하고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에 대해서는 견제하면서 전술적 타격을 가하는 투쟁이 요구된다. 집권세력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대하지 말고 그 세력권안에서 개혁성과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구성부분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 대응해야 하며 민족통일전선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하여 그 동력을 강화하

→

광고

PDF 총서

21세기 태양

노작
4 영화예술론 -종자는 작품 핵이다
8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종자란 무엇인가
10 종자란 무엇인가
11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이다
16 종자는 형상의 원형이다
20 종자와 소재
24 종자와 주제
28 종자와 사상

종자의 기
32 종자의 기능
33 종자는 작품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다
37 종자는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요인이다
42 종자는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46 종자는 창작가를 속도전으로 추동하는 요인이다

종자의 탐구
50 종자의 탐구
51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55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잡아야 한다
58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
62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는 작품의 생리적 과정과 창작의 원리
66 사상성과 예술성
71 독창적인 문예이론

주체의 문학예술혁명
73 20세기의 문예부흥
74 수령형상창조
75 공산주의인간학
76 영화예술혁명
77 가극혁명
79 무용표기법
80 건축은 종합예술

주체문예의 개화발전
82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개화발전
86 창조와 변혁을 위한 독창적인 종자론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PDF편집물 21세기 태양 총서.
인터넷 구국전선(ndfsk.dyn.to)과 전국연합 각종자료게시판 (www.nadrk.org), 민주노동당 기타자료실 (www.kdlp.org)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 주적에게 타격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6.15공동선언을 민족통일전선의 위대한 승리라고 칭송하고, 또한 그 선언을 민족통일전선이 실현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준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친미예속적 집권세력의 일부를 민족통일전선안으로 견인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하여 형성되고 그 선언을 기치로 하여 한(조선)민족 전체를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전진시키는 자기의 성격을 확대시키고 있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이 6.15공동선언 이후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반미자주화를 기치로 한(조선)민족 전체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민족통일전선의 또 다른 성격, 반제적 성격도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민족통일전선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 계급적 처지와 생활권의 차이를 떠나 6.15공동선언을 지지 · 찬동하는 모든 민족성원들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무한정한 투쟁동력을 공급받는다. 민족통일전선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시작하여 연방제 통일을 완수하는 전체 과정에서 부단히 심화 · 확대되어 간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이 심화 ·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그 전선의 반제적 성격도 심화 · 확대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은 곧 그 동일한 전선의 반제자주화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이며, 반제자주화운동이 전진되면 민족의 자주성이 완성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이 날로 강화 · 확대 · 발전하는 정세속에서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고 근로대중의 사회 ·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북(조선)의 정부와 함께 기존의 민족통일기구를 더욱 강화 · 확대 · 발전시켜 짧은 기간 안에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우리 운동대오가 지역통일전선론을 생소해 하고 민족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과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선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위당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짧게 설명되었을 뿐이고 그 방송내용을 접한 운동가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대오는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 통하여 전위당의 방송 내용이 아니면 이색조류로 단정부터 하고 보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민전의 지역통일전선은 지역변혁을 수행하는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인데 반해 최성원동지가 설명한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이기 때문이다.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원론적 설명이 미약한 조건에서 6.15공동선언 이후 심화된 지역통일전선론이 긴급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통일전선과 민족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 간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통일전선에 대한 기성이론과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이론간의 관계가 중첩되어 있다.

이상의 당문헌과 주요논문들에 직간접적으로 설명된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로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 민족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과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호석소장의 논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기준은 분단이다. 분단되지 않은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은 곧 민족민주전선이다. 반면 분단된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과 다르다. 분단된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며 민족민주전선은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둘째, 두 개의 강령을 가진 지역통일전선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서 전략단위이며 다른 하나는 6.15공동선언강령의 지역통일전선으로서 전술단위이다. 전자는 한민전의 1999년 문헌에 나온 지역통일전선이며 후자는 최성원동지의 2001년 논문에 나온 지역통일전선이다. 한민전의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가 6.15공동선언 이전에 나온 견해이며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원론적 견해임은 물론이다. 자주민주통일강령이 우리 운동의 전략적 노선인 만큼 그 강령을 가진 지역통일전선은 전략단위로 된다. 반면 최성원동지의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는 6.15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견해이며 한민전의 원론적 견해를 내포하면서 새로운 정세변화에 맞게 심화시킨 견해이다. 6.15공동선언은 반미자주를 전면화하지 못한 과도적 강령으로서 이 강령을 가진 지역통일전선은 자주민주통일강령의 전략적 지역통일전선으로 전화발전하여야 할 전술단위로 된다.

그것은 세째, 지역통일전선은 두 개의 전선과 모두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 두 개의 전선과 모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먼저 지역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 간의 관계를 보면, 지역통일전선은 원론적으로 지역변혁을 수행하는 자주민주통일강령의 통일전선이므로 민족민주전선과 동일하다. 이는 전위당의 문헌에 나온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이다. 다음 지역통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의 관계를 보면,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으로서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이다. 이는 최성원동지의 논문에 나온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

5,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일 계속됩니다)